

소식지 발행
7월 1일부터 창간 준비호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이야기,
학복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2달에 한번씩 10일 발행!

세미나 - 교육사회학 '학교교육과 사회의
관련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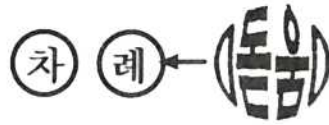
제보받기 - 제보를 받고, 제보를 사례와 하여
그런 일이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 정당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열립니다.

누구나 학복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복회에 대해 알고 싶으시던가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소식지에 글을 실고 싶으신 분은
나우누리 학복회 시삽 견우
(나우누리 ID : 김밥시대, 019.371.8266)
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 땅의 교육 문제와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 이야기 해 보자
- 4 나 이거 불만이야
- 6 우스개
- 8 우리의 주장
- 9 이책 어때
- 11 년 그렇게 살지 마
- 13 학교일기
- 15 학복회가 나아가야 할 길
- 16 학복회에서 하는 일

중/고/등/학/생/복/지/회/



안녕하세요 편집장 올비입니다.
 앞으로 학복회 소식지 '돌!움'은 두달에 한번
 발간됩니다.
 학복회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126-615039-02-001 (한빛은행 : 나정훈)
 으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호 '돌!움' 재미있게 보세요.

봉사활동에 대한 찬반 논쟁

반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불어닥친 열린 교육의 바람은 기존의 학교교육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물론 대학입시라는 부동의 최종목표에는 당연히도 변함이 없다.) 봉사활동 제도도 그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학생때부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봉사활동은 그 근본취지는 무시되고 그저 시간만 채우면 그만인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다. 똑같이 점수를 얻더라도 수학,영어로 점수를 얻는 것과 봉사활동으로 점수를 얻는것은 다른 의미를 지녀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봉사활동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과목들중 하나가 되어 버린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물론 대학입시만이 지상목표인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까지 논한다는것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의 봉사활동 제도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수밖에 없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고 실령 찾았다 하더라도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그릇된 가치관만 심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가진 현 봉사활동 제도는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크게 낡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봉사활동과는 그 성격 자체가 지극히 이질적인 이기적인 교육풍토에서 봉사활동 제도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것처럼 억지스러워 보인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봉사활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 좀더 뒤로 미루는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좀더 좋은 교육풍토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여러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야 봉사활동 제도도 비로소 **글쓰미 미지의쾌락** 정착될것 이라고 생각한다.

- '찬성'글은 지면사정상 실지 못했습니다.

**나 이거 불만이야
넌 안그래?**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

수능위주에서 수행평가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좋은 취지와는 달리 학교의 강제성 봉사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 해보자.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은 자율적이지 못해 진정한 '봉사활동' 이라 할수 없다.

"1학년 때 30시간" 이런 식으로 의무감과 점수 때문에 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과 '봉사'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가 없어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 한다.

학교는 봉사기관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지 등의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가보라는 식이었다. 또한 봉사기관도 비협조적이었다. 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나는 식의 말투, 봉사활동인지 '잡일꾼' 인지 구분 할 수 없는 일.

봉사활동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껴야 하지만 '잡'노동이란 생각을 하게된다.

세 번째 어른들과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XX 구청에서는 학생들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음악회에 참석하게 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문화일보)"

"아버지 친구 분이 통장님이라 그냥 찍어주셨다"

"봉사활동 시간을 고쳤다"

'나 하나쯤이야' '공부해야지 무슨 봉사활동' 이런 생각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까지도 힘빠지게 한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99년 8월 28일 학복회 편집부모임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

우리가 토론한 봉사활동의 현실적 해결 방법은

'학교와 봉사기관과의 연대', '봉사활동 점수화 폐지', '입시철폐' 등이 있다.

봉사기관과 연대를 한다면 학생들이 봉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점수화는 학생들이 억지로 봉사활동을 하게 할뿐이다.

만약, 폐지된다면 학생들이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내용들은 아직은 희망사항 일 뿐이다.

그러나 '봉사활동!'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우 스 개>

잘난 학생을 아십니까?

우리의 친구 방주만 학생은 오늘도 부지런히 학교에 갑니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군요.

앉아있으니 피곤한 몸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께서 주만이를 앞으로 오셔서 가시질 않습니다.

"앵이~ 다리야..."

주만이는 초지일관한 자세로 앉아서 수면 삼매에 빠지려 애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께서 말씀하십니다.

"학상, 웬만하면 일어나지..."

주만이는 막 무아지경에 빠지려 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주만이는 역시 3중 칠판입니다.

"어이구..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주만이는 마빡이 땁니다.

"뭐어어요?"

주만이는 버스 안에서의 일로 기분이 꿀꿀합니다.

"췌엔장..학교에서 뭘 배우냐고? 어휴~ 정말 학교 때문에 내 이미지 상한다니까. '학교' 때문에!!"

주만이는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현관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한번 까고 들어갑니다.

첫 시간은 컴퓨터 시간입니다.

"씨.. 학교 컴퓨터는 꼬져서 쓸 수가 없

판말야!"

탁, 탁탁, 탁! (퍽, 퍼벅, 퍽! <= 원음)

주만이는 자판을 뿌셔 버릴 듯이 울나 세게 칩니다.

힘세고 터무한 주만이!!

그런데 어, 엔터 키가 맛이 갔습니다. 어찌죠?

'뭘야~' 역시 학교 컴퓨터는 다 팡이야, 팡.'

성질이 난 주만이는 파킹도 시키지 않은 컴퓨터를 단박에 꺼버립니다. 어차피 꼬진 컴퓨터인데요, 뭐. 상관없어요.

5교시는 산수 시간입니다. 아.. 5교시는 너무 졸리죠.

한 숨 자고 일어나 개운하게 맘좀 잡고 공부하려 했는데 칠판을 보니 아는 게 없습니다. 주만이의 '학생들'을 위한 '정의'가 끊어오릅니다.

"선생님!"

"와?"

"하나도 모르게췌어. 학생들이 이해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도를 막 나가셔도 됩니까?"

주만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차피 말은 안 통하니까요.

쌤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디 자숙... 지가 퍼질러 자놓고는 내

한테 우짜란 말이고? 다음부터는 말로만 해서는 안되게꾸마!"

더격! 역시 이 쌤임은 인간이 아닌가봅니다. 말로 해야지 왜 학생에게 손을 대려고 합니까?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도 말로만, 말로만 해서 참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란 인간이 아닌 '교사' 그 자체일 뿐이니까요. 안그렇습니까?

오늘은 스투던트 복지파 단합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하러왔군요! 학교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복지파의 짱이 바로 주만이이죠.

"학교는 모든 모순의 귀결점입니다. 거의 모든 컴퓨터는 작동이 임파시블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트레이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트레이 박스는 부서져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체벌부터 가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란 있을 수 없죠. 안그렇습니까? 우리 스투던트 복지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애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자 이말이죠."

역시 주만이는 말도 참 잘합니다.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말과 영어를 적절히 사용했군요. 논리 정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친구들은 이런 주만이를 멋있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합니다.

주만이는 진짜 잘났거든요.

아참,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썩고 죽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배울 만 한 것이 없지요.

주만이는 스투던트들의 더욱 더 팔자 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입니다.

훌륭한 학생 만세!

** 이 글에 나온 인물은 실제 인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상적인 인물임을 밝힙니다. **

글쓴이 비너투

우리의 주장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학교!!

-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몇 달 전, 하이텔에 있는 한 학교의 통신 모임은 학교장에 의해 강제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누군가가 한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학생과 졸업생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어느 교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측은 그 모임이 교사를 비방하는 등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모임의 폐쇄를 명령했고, 모임의 운영진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운영진은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모임은 무기한 운영 중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임의 졸업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글이 정말로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글인지를 물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글은 단지 타 모임에도 흔히 있는 교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지 특정 교사를 비방하거나 욕한 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 글이 문제가 된다면 운영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모임의 폐쇄를 요구한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글을 어떻게 교사가 보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분께서는 그 게시판에 있는 글은 운영원칙상 교사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게시판은 재학생과 졸업생만이 읽고, 쓸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이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허위가입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분은 학생들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통신 모임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보고 학교에 대한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 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검열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조차 학생들의 통신 생활을 검열하려하니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를 수용하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글쓴이 **하얀비**

우리가 자꾸, 학교와 교육을 신비화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한 선생님들을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누구도 교육을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일 정도이다."라는 식으로 야기하는 문제에서 문제를 떠나, 정말 학교와 교육이 신비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교육 제도를 신성시 여기고 있는 학교의 학칙에 정권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인가? 우리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신성시 하는 편견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교육 현실이 '학생에게 신성시 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교사, 성인 분들은 자신이 혹시 교육을 종교 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때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인데 당연하지."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때야 비로소 '교육=종교, 학교=신전, 교사=성직'이라는 낡은 편견을 벗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학교가 폭력을 만든다는 주장을 옳겼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은 불평등하다.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들는 이야기는 '교육 정상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상화는 과외비나 학원비등의 사교육비의 절감과 (학교제도와 같은)공교육의 확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공교육 제도는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건어서, 불합리한 평가시험을 통과한 몇몇의 사람에게만 그 돈과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몰아주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하류층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의 1인당 교육 보조금을 생각해도

그렇다. 최근 떠들썩한 BK21 사업등을 보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소수의 대학원생들을 위해 투자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명문대학의 경우는 더더욱!! -의 대다수는 부유층 자체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 학교 제도가 "가난한 학생 부모의 주머니에서 교육세를 건어서 소수의 부잣집 똑똑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평등한 기관'이란 생각이나 '성공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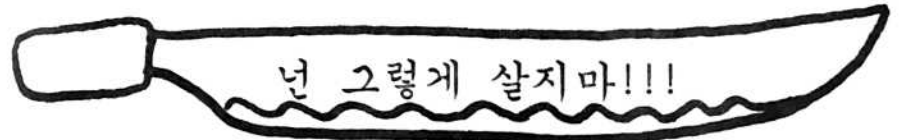
또한, 학교는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비효율성에 대해선 지난 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루진 않기로 한다.

비용의 낭비는 교육 비용을 대주는 사

복해서 다루진 않기로 한다.
 비용의 낭비는 교육 비용을 대주는 사람과 그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세는 서민의 지갑에서 나오지만 그 운영자는 서민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교육 행정 관료들이다. 행정 관료의 업무가 마치 특권인 줄 아는 관료 집단에 의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늘 현실과 동떨어진 투자만 반복하기 일췌이다.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이 교육 행정에도 적당하다.
 덧붙여, 이처럼 잘 못된 교육제도와 관행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함께 지적하겠다.
 흔히, 우리는 학교가 '학습 동기'를 학생에게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는 '학습 동기'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자퇴생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학습 동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최근에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자퇴하고 성공한 아이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 아이들 50명 전원을 평등하게 대할 수 없다. 교사도 개인적인 인간인데 어찌하면 학생 개인마다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 **가 수학은 완전 광이지?', '어? 반장인 &&가 수업시간에 줄 리가 없을텐데?'라는 식의 편견으로부터 문제 풀이를 시키는 아이들의 선택까지 사실 교

사의 인간적인 편견이 안들어갈리는 없다.
 이런 편견들은 모범생, 문제아를 나누는 것 처럼 일종의 낙인이 되어서 학생들을 괴롭힌다.
 (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자신의 편견이 사실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라면 강의를 통해 모두 배운 사실이다.)
 학교가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단지 무수한 테스트를 통해 학교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의 담장 밖으로 던져버릴 뿐이다.
 시험은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열등생'과 '우등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줄 뿐이다. 만일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학생들 모두의 학습 동기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시험 점수에 따라 열등생과 우등생은 나뉘기 마련이다.
 비슷하게, 유기 정확이나 무기 정확을 받은 학생이 '모범생'이 되는 경우도 없다.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대부분 '교화'하기 보다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문제 학생과 모범생을 구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 이상이 아니다.

글쓴이 누니



우리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시절에 비해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환경은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개선 노력은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한번쯤은 학생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권을 '권위주의'와 '인권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무시하고 있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대간 차이에서 오는 인식, 가치관의 차이를 비판하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무언가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 비판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비판 대상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스스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비판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우리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의 모습에서나 우리 교실들에서 말이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학교 내의 선후배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일상적인 관계에서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팽창하다. 지나가는 선배를 만나면 보통은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를 허리 굽혀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권위주의에 도취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권위적인 모습과 기성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일상에서도!
 일상에서 자주 듣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견해의 무비판적 수용은 실로 무서운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보된 지성과 결단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알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가를 말하는 것이다.

또, 우리 우리의 행동과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많은 학생들이 기성세대를 상대로 하는 우리의 주장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처지와 별다른 바 없는 친구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혼자만의 생각으로써 그런 생각을 접곤 한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 표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뿐이다.

그러한 자세로는 우리의 인권을 찾는다는 건 단지 생각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우리의 적으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뿐이므로 이성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반성을 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비판으로 한발한발 인권 회복을 위한 발을 내 디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박이**

학
교
일
기

오늘 아침에는 지각을 했다. 언뜻 눈을 떴을 때엔 8:20.. 지각이다. 싫었다.

어차피 1교시는 시작되었을 테니 서두를 필요는 없겠군, 하며 냉장고에서 포도를 꺼내 얇은 베이어 합판의 고시원 벽에 등을 기댔다. 어제 너무 늦게 잤나보다. '한제형, 아직도 삶을 컨트롤 하지 못하다니' 스스로 가벼운 자책을 하고 있을 찰나. 전화가 울렸다. 담임일 테지, 전화기 배터리를 빼 던졌다. 그래도 내 고교 시절 마지막 담임은 괜찮은 사람이다. 아이들을 때릴 줄도 알고 감싸 줄줄도 알기에. 물론 그가 교육제도 자체의 모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좀 더 바른 교육체제 안에 그가 있었다면 그는 정말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해병대 출신이라며 단호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나, 나는 가끔 그가 체벌을 가한 후 흔들리는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감지한다. 그랬다. 아마 그는 젊었을 시절 많이 슬펐을 거다. 분명히 처음으로 학생에게 매

를 댔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그런 사람일 게다. 그도 나만큼이나 현실을 서글퍼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그는 또 체제의 법칙을 따라 나를 조금 더 가혹하게 대해야만 한다. 나는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다. 오늘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등교를 시작했다.

1교시가 끝나고 찾아온 담임한테 하키스틱으로 손바닥을 두 대 정도 맞았다. 하키스틱은 아프다. 아팠지만, 그건 정당했다. 담임으로서 지각한 학생에게 손바닥 두 대를 때리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일이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땐 교실에 두세 명만이 있었다. 아이들한테 지금이 무슨 시간이나고 묻자 점심시간이란다. 그랬군... 어슬렁거리며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 앞에 개떼처럼 줄지어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오늘은 이상하게 여느 때처럼 역겨움을 참고 줄 사이로 섞일 수가 없었다. 스탠드 구석에 좋아하는 나무 밑으로 가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물이 덜 빠진 운동장에 야구부가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웃고 있다. 웬지 그들의 웃음이 언젠가 미술교과서에서 보았던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시계의 초현실주의적인 화폭처럼 보였다. '그래, 이런 데서도 웃고 있는 게지.. 기특한 고로.. 중얼거렸다...어쩔 수 없이 삼천 명이 같은 걸 먹고선 돌아와 잠이 들었다.

8교시, 누군가가 깨웠다. 영어 교사다. 나한테는 쓰레기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버러지다. 별점카드를 남발하면서 당혹해하는 아이들에게 승리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쓰레기다. 교재 안 가져 온 사람들 뒤로 나가서란다. 나가 섰다.

'힘든 사람은 복도에 나가 앉으세요'

'앉아 있어도 돼요?' 누군가 물었다.

'그럼 별점 2점입니다.'

그가 더럽게 히죽 웃었다. 나도 웃어주고는 복도에 나왔다.

다른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다. 4층 복도 창문까지 고개를 들이밀고는 나를 바라보는 은행잎들이 보였다.

'행복하니?' 은행잎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가을 미풍에

가볍게 흔들렸다.

복도에 드러누웠고, 곧 잠에 들었다. 깨어보니, 8교시가 끝났나 보다. 그가 나와 자랑스럽게 하나 두울 세면서 별점카드를 나눠주었다. 그래 한 장이라고 개수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 별점카드에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적었다. 별점카드 위에 보랏빛으로 '한심하군'이라고 썼다. 저번엔 가운데 손가락을 쳐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냈었다.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방지고 적대감을 가득 담아 카드를 건넸다. 힐끗 내가 쓴말을 보았다. 가만히 카드를 걷어가지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하는 거다. 자기 자식 빨 되는 인간한테 한심하단 소리 듣고도 휘적휘적 사라지는 꼬락서니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도 없다.

오늘은 그렇게 학교에 있었고, 누엣하고, 주황빛이고, 덥고, 습기찬 태양이 내리쬐는 학교를 했다.

학
교
일
기

글쓰이 세상걷기

학복회의 이상과 운영

학복회에 건의해요.

학복회의 이상과 운영
청소년 인권 보장과 이상교육의 실현!
우리 학복회가
실현하고자하는 그것들이다.

청소년의 인권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직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인권유린 사례들.. 체벌과 두발검사, 야간자율학습 등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당연시 행해지고 있다.

교육제도 역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생존의 논리'가 적용되는 현 교육실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행복과 꿈과 이상'은 현실일 수 없다.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의 움직임은 매우 미미하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어서, 청소년의 인권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교육제도의 변화를 꾀하

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첫 단추들 역시 말 많고 부작용 많은 것들이다.

청소년 인권문제 해결과 이상교육 실현은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결코 단기적인 문제들이 아니다. 한번 멋지게 우리의 주장을 말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우리가 부딪쳐야 할 존재들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학복회 운영이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이슈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청소년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운영은 운영자 2명에 의해서(그것도 양쪽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을 위한 운영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난 그것을 건의하고 싶다.

난 현 운영체제의 한계가 지금이라고 느끼고 학복회 운영 체계의 변화를 바란다.

글쓰이 권우